

‘전남형 전략사업’ 6곳 선정... 내년부터 635억 투입

무안·영광 먹거리, 완도 힐링, 여수 新 경험, 순천 생태, 나주 반려동물 특화자원 활용해 지자체 자립 기반 마련... 2024~2025년 단계적 착수

전남도가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사업 육성·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II 단계)’으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은 무안군 ‘맛플 무안 먹거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영광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완도군 ‘힐링해 완도 프로젝트’, 여수시 ‘새로운 경험으로 남도의 중심 여수 만들기’, 순천시 ‘순천시 생태&과학 미래 교육센터 조성’, 나주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2024년부터 3~4년간

635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그동안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2020년 도입됐다. 2022년까지 12개 시·군에 1294억원을 들여 추진한 1단계에 이어 미 선정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2단계 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4월 먼저 선정된 2단계 사업지 광양, 고흥, 화순, 강진에 올해 사업을 착수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 중 무안·영광·완도는 2024년, 여수·순천·나주는 2025년 착수한다. 무안군 ‘맛플 무안 먹거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먹거리 융복합거점센터와 간편식품 소재 가공센터를 조성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맛플 무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영광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먹거리 유통부터 직판매장까지 종합시설을 갖춘 안정적 급식 식재료 공급,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힐링해 완도 프로젝트’는 산책로, 숲속도서관 등을 갖춘 힐

랜드 포레스트와 푸드하우스, 힐링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수변휴게공간과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야간명소거리를 조성해 국내 대표 ‘해양치유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여수시 ‘새로운 경험으로 남도의 중심 여수 만들기’는 청년창업공간(판매·체험·협업·공유공간) 조성, 콤팩트물(청년물) 리모델링,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순천시 생태&과학 미래 교육센터 조성’은 스페이스 에듀센터, 미래혁신 연구센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관 등으로 과학문화콘텐츠 생산·유통 거점을 마련한다. 어린이 친화도시 기반마

련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된다. 나주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애견뮤지엄, 애니멀 스테이 글램핑 조성,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목표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자원과 매력을 살린 지역 주도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전담위원을 두고 상시 자문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기공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내빈들과 나주 영산강~함평~무안 남약까지 영산강 강변도로 최종 연결을 위한 ‘영산강 강변도로(2-2단계) 기공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강기정 시장, 총장로 상권 활성화 논의

광주시 정책소품...상인들 ‘청년세대 정착·공방 체험 시설’ 등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총장로 4·5가를 찾아 상인들과 만나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화예술산업 지원시설인 ‘총장22’에서 열린 25번째 ‘정책소품’에는 총장로 4·5가 주민협의체인 ‘총장45상생발전협의회’ 회원과 총장로 4·5가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침체한 총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정착 및 협력, 공예공방 체험·전시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원 총장45상생발전협의회장은 “수 십년간 한 자리에서 양복·한복점, 공방 등을 운영해온 간 상인들의 제작품을 전시·체험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백년가계와 오래된가계가 있는 총장로 4·5가는 장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이라며 “산업과 관광 측면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 전략 논의

테크노파크서 2차 회의...지역산업 현황·사전 조사 현황 공유

광주시가 기회발전특구의 중심이 되는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지역산업 현황과 사전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특구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절차 세 부서와 기업 특전(인센티브) 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사업평가단과 함께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와 목표기업 선정을 위한 전략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위해서는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가 필수인 만큼 투자유치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 협업을 통해 선도기업 유치 전략과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선도기업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광주시·유관기관·투자유치자문단 등 지역의 역량을 모아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업 승인 공동주택 22곳 교통 예측소음 적합

올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있는 광주 공동주택 22개 단지가 교통 예측 소음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25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단지에 대한 교통 예측 소음평가 결과 실외 소음도는 모두 기준치 65dB(데시벨)을 넘지 않았다. 건축 후 기준치를 넘을 우려가 있는 일부 단지에는 방음벽 설치, 저소음 도로포장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의뢰한 사업계획 승인 단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예측 소음평가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형과 교통 정보를 3차원 입체(3D) 가상 공간에 적용해 실제 거주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음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백신평구 특화분야로 ‘펩타이드’ 육성

전남도, 혁신신약 포럼...인슐린 제제 등 의약품 개발

전남도가 지난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펩타이드 혁신신약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그동안 백신 분야에서 성장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남도와 화순군이 2021년 조선평과 함께 ‘펩타이드 기반 난치성 암치료제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계기로 다양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이어가는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분야로 ‘펩타이드’를 선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펩타이드 포럼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산학연병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기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50개 정도가 연결된 물질이다. 생리활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펩타이드를 조합해 의약품이 개발된다. 대표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가 있다. 부작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신약 성공률이 2배 높다. 2021년 기준 펩타이드 의약품 글로벌 시장규모는 48조원이며, 2030년 10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에선 이근재(주)메디딕 수석의 기초조연, 이윤식 비드테크 대표의 펩타이드 소재 신약의 대량생산 전략, 김양미 건국대학교 교수의 구조·활성 상관관계 기반 펩타이드 합성제 개발, 김홍기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센서와 생체모사 장기칩의 역할 등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펩타이드를 활용한 질병진단 분야 활용 가능성 및 국내외 사례가 발표됐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어려운 지방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신약 개발 전주기 기반시설을 구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육성과 산업진흥을 위해 펩타이드와 같은 첨단 신약 특화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일메